

# “독점기업 일방적 구조 바뀌야”... ‘온라인플랫폼법’ 도마 위로

플랫폼 입점 업체, 법안 통과 촉구 사전 감시대상 지정·정기 감사 ‘쟁점’ 기업 이용약관 개정으로 업체 피해

IT플랫폼 업계, 재점화 상황 ‘부담’ 경영권 침해·의사결정 지연 우려 글로벌기업 세금회피 등에 관심 필요

6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 등이 ‘온라인플랫폼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IT업계가 다시 한번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입점 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에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플랫폼 입점업체 관련 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통과를 숙원 과제로 삼고 있다.

9일 시민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회복을 위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가 온라인플랫폼법 등 민생 5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한 추경과 민생법안인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들이 대출금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지금 당장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법은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독점 기

업의 일방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규제 감시 대상의 사전 지정과 분쟁조정위원회 및 단체교섭권 설치 의무화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사전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지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이용약관 개정 등에 있어 입점업체와 소상공인의 입장을 반영

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단체교섭권 중 하나 이상을 설치·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이용약관 개정으로 인해 입점업체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IT 플랫폼 업계는 해묵은 논쟁이 다시 재점화되는 상황 자체를 부담스럽게 보고 있다.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IT업계 관계자 A씨는 “윤석열 정부 이후 간신히 논란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대선 국면을 맞이하면서 다시 화두가 된 사실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단체교섭권과 감시 통제로 인해 플랫폼 기업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경쟁력 약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 B씨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한국 진출에 따른 위기감과, 자국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우회 등 세금회피 문제를 포함해, 우리 기업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5건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법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업에 대한 역할별 규제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허위정보·직원 감시... AI 윤리문제 ‘부상’

中, 대만에 AI 활용 메시지 생성·전파 美 DOGE, 연방 공무원 소통내용 감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 정보 확산과 내부 감시 등 첨단 기술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며 기술 윤리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 국가안전국은 8일 중국이 생성형 AI를 사용해 대만을 향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는 대만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대만 국가안전국은 올해 페이스북과 틱톡 등 SNS에서 50만건 이상의 ‘논란이 되는 메시지’를 탐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날 입법원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베이지가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지난달 라이칭더 총통의 중국 관련 연설이나 TSMC의

미국 신규 투자 발표와 같은 민감한 순간을 겨냥해 ‘인지전’을 시작했다”며 “AI 기술의 응용이 더욱 광범위하고 성숙해짐에 따라, 중국 공산당이 논란이 되는 메시지의 생성과 전파를 돕기 위해 AI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고 분석했다.

AI는 허위 정보 확산을 통한 사회 분열뿐 아니라 직원 감시에도 악용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8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감을 가진 직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 연방 공무원들의 소통 내용을 감시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환경보호청(EPA) 소속 직원들에게 DOGE 소속 기술진이 AI를 사용해 트럼프 혹은 머스크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을 탐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마이크로소프트팀즈(화상회의 프로그램

램)를 포함한 통신 앱과 소프트웨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AI를 이용하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그들은 반트럼프나 반머스크 발언을 찾고 있다”, “당신이 말하는 것, 타이핑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워싱턴 대학교의 정부 윤리 전문가 캐슬린 클라크 교수는 “미국 대통령이 싫어하는 발언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한 정부 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 보도 후 EPA는 성명을 내고 “기관 운영과 행정 효율성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AI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DOGE와 협력해 인사 결정 등에 인공지능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실제 AI 기술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현정 기자 hjk1@

##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연구개발’ 기여

과기정통부 장관상 표창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자율주행 산업 발전과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과기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상 표창을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4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1단계 성과공유회에서 AI(인공지능) 연구개발팀 흥승환 책임연구원이 ‘자율주행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개발·표준화·공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레벨 4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및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의 ‘자율주행 지능학습 데이터 수집·가공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해 고도화된 자율주행용 AI 학습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생성·관리·배포할 수 있



지난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1단계 성과공유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흥승환 책임연구원(오른쪽)이 수상 후 과기기술정보통신부 송창중 디바이스AX혁신팀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는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본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 ‘자율주행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AI 나눔’ 플랫폼에 무료로 공개해 국내 자율주행 연구개발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했다. /김현정 기자

## 메타빌드, AI 사회보장연계 실현 박차

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

AI·연계미들웨어 전문 기업 메타빌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생성형 AI 적용 사회보장연계 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AI 연계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사회보장·복지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한다. 두 기관은 ▲메타빌드 시스템에 AI 연계 기술 실증 ▲신속한 맞춤형 AI 연계 서비스 구축 ▲연계 데이터 AI 품질 관리 등 인공지능 기술 실

증에 나선다.

이와 함께 메타빌드는 연계 시스템 운영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시스템 오류와 장애 등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AI 기반의 이상 탐지 기능을 제공한다.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이사는 “시스템 상태와 트래픽 흐름, 서비스 실패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해 운영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복잡한 로그 분석 없이도 이상 징후를 자동 탐지하고 장애를 예측함으로써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오른쪽)와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연구원장이 지난 8일 ‘생성형 AI 적용 사회보장연계 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메타빌드

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SKT, AI 분야 스타트업 발굴·성장 지원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참가사 모집

SK텔레콤이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을 위한 ‘AI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가속화를 목표로 하며 총 15개의 스타트업을 선발한다.

SK텔레콤은 ‘AI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에 선정된 스타트업에 6개월간 맞춤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한다.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AI 스타트업 특화 멘토링 및 세미나 ▲SK텔레콤과의 사업 협력 기회 제공 ▲국내 주요 벤처캐피탈의 멘토링과 투자 검토 ▲데모데이 및 외부 IR 행사 참여 등이 포함된다.

SKT는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30개의 혁신적인 AI 스타트업을 집중 발굴해 육성해왔으며, 작년에 선발된 15개 팀 중 10개팀이 SKT와 총 16개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김서현 기자